

<2023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소집 통보일자	2023. 1. 2.
의 원 정 수	재적위원 11명

VISION College of Jeonju
전주비전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2023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2023년 1월 9일(월) 10:00

2. 장소: 비전관 2층 다목적회의실

3. 참석인원: 재적의원 11명 중 9명 참석

- 참석의원(9명): 우병훈 위원장, 이원희 위원, 김순정 위원, 김숙영 위원, 박훈민 위원
송명하 위원, 김하은 위원, 권다운 위원, 임연선 위원
- 불참의원(2명): 이상락 위원, 김세린 위원

4. 안건

- 제1호: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제2호: 전주비전대학교 임의기금 및 기금별 이자 선급법인세 환급액 적립(안) 심의
- 제3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제4호: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법정부담금(안) 심의
- 제5호: 2023회계연도 전주비전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심의
- 제6호: 교비회계 이월금 처리기준(안) 심의

5. 회의내용

- 개최기도
- 성원보고 및 개최: 박성용 간사가 재적의원 11명 중 9명 참석으로 개최를 선언
- 안건 상정

제 1 호 안건: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우병훈 위원장: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안효성 기획예산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안효성 기획예산팀장: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금 인상'입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방법 산정 공고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법정 한도는 4.05%이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 하락의 심화, 10년 이상의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로 인한 수입 감소 요인과 더불어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각 종 평가를 위한 기준 충족 이행으로 인한 지출적 요소가 병행됨에 따라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자구노력(긴축 재정)과 동시에 등록금 인상으로 수입원 확보를 통해 재정악화 완화 및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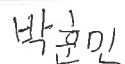
우병훈 위원장



김순정 위원



박훈민 위원



- ▶우병훈 위원장: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은 기본적으로 인상안을 제시하는 바이며, 교육부 정책 및 등록금 인상으로 초래되는 사항(국가장학금 2유형 수혜불가 등) 다양한 여건에 대해서 대학의 추가적인 수지분석을 통해 '동결'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김숙영 위원: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교 학생들은 연평균 300백만원 가량의 장학혜택을 수혜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등록금 인상 시 수지개선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4학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 시, 등록금 인상 제한을 예외로 하는 정책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므로 교육부 정책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상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임연선 위원: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인상 시 패널티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의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학 자구적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등록금 인상을 통해 재정 악화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우병훈 위원장: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 신청이 제한되지만, 이는 대학의 교내 장학금 재원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 ▶박훈민 위원: 교육부 정책, 학령인구 감소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대학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등록금 인상이나 인하는 양측에 모두 부담되기에 2023학년도 등록금은 동결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송명하 위원: 회의자료에 표기되어 있듯이, 지속적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이 감소하여 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인상액 약 12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연선 위원: 등록금이 동결되면 학생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할 순 있지만, 대학 측에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약적입니다. 서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대학측에서도 단순히 등록금 인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과 수지분석을 진행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회의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의결한 후, 향후 정부정책과 대학의 분석에 따라 최종 결정을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순정 위원: 2023학년도부터 우리 대학은 입학 장학금을 1인당 0.5백만원씩 책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총 600백만원 가량으로 대학 입장에선 쉽지 않은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이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금 인상으로 수반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방안을 대학에서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대학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통한 수입원 확보 방안을 보다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회의에서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고, 회의 이후에 대학에서 추진하는 추가 분석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을 따르는 것에 위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훈민 위원: 설명해 주신 내용에 공감하며,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분석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등록금 인상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결정된다면 학생지원 정책의 다양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보다 촉구드립니다.
- ▶우병훈 위원장: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원안대로 통과하되, 교육부 정책 및 대학의 추가적 분석을 토대로 그 결과가 변동(동결)될 수 있음에 위임하는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 ▶박훈민 위원: 동의합니다.
- ▶이원희 위원: 재청합니다.
- ▶경과사항: 박훈민 위원의 동의와 이원희 위원의 재청에 따라 우병훈 위원장은 이의나 개의를 최종적으로 없음을 확인하고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추가 분석을 통해 최종 결정이 변동(동결)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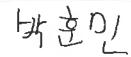
우병훈 위원장



김순정 위원



박훈민 위원



제 2 호 ~ 제 6 호 안건: 전주비전대학교 임의기금 및 기금별 이자 선급법인세 환급액 적립(안) ~
교비회계 이월금 처리기준(안)

- ▶우병훈 위원장: 두 번째 안건부터 여섯 번째 안건은 예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안효성 기획예산팀장께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안효성 기획예산팀장: 두 번째 안건은 임의기금 및 기금별 이자 선급법인세 환급액 적립(안)으로 주요 골자는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 시 반영하였던 건축기금 6,309백만원 중 151백만원을 2차 추가경정에 반영하고 6,158백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이며, 이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응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충원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하락함에 따라 수입예산 중 등록금 수입이 4,900백만원 감소되었으며 사학진흥재단의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금(국가장학금 1, 2유형)을 수입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지출예산 중 교직원 급여가 4,40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직원 특별명예퇴직 시행 예정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며, 관리비, 운영비, 연구학생 경비 등 전 부문에서 전 교직원의 노력을 통해 지출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1차 추경대비 5,970백만원 증가하여 수지개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으로 학교법인의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727백만원으로 예측되며 이중 50백만원이 전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잔여 금액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거하여 학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법인 전입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을 학교비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실질적 부담금은 교직원의 인원, 퇴직 증감 등의 요인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편성(안)이며, 예금이자와 단기 수강료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수입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률이 전 학년 보다 5%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1,210백만원의 수입 감소가 예측되며, 재정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하여 지출요인을 억제하였습니다.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78,00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4,700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안건은 교비회계 이월금 처리 기준(안)으로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 이월금이 202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한 규모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대학의 중장기계획 추진, 직접교육비 등 교육환경개선에 사용하고 건축기금 적립재원의 일정액을 적립 후, 차년도로 명시이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퇴직금 지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 등의 명시이월자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임연선 위원: 전년도의 법인전입금 규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우병훈 위원장: 2021회계연도는 50백만원, 2017~2020회계연도는 평균 약 150백만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임대 수익과 기부금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법인에서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법인 전입금 상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송명하 위원: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안효성 기획예산팀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금이며, 현재 예상보다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금 수입이 매년 10% 이상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학의 자구노력이 없는 한, 3년 안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의 감소세를 완화하기 위해 건축재정, 평생교육 및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자구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훈민 위원: 기타이월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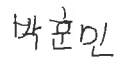
우병훈 위원장



김순정 위원



박훈민 위원



- ▶ 안효성 기획예산팀장: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및 대학 전반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임연성 위원: 기숙사 환경개선비가 2023회계연도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안효성 기획예산팀장: 기숙사 환경개선은 학생생활선교관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비용으로 2022회계연도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3회계연도에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 ▶ 김하은 위원: 2023회계연도에 예비비 편성이 90백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 ▶ 안효성 기획예산팀장: 통상적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비비는 100백만원 편성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2022회계연도 2차 추경에서는 그 금액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10백만원으로 감액을 진행하였고, 이와 대비하여 90백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의미이며, 2022회계연도 본예산과 대비하였을 때는 변동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 ▶ 김숙영 위원: 법인전입금 감소에 대한 법인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 우병훈 위원장: 법인전입금은 각 중 평가 항목에 사용되어지는 법인 책무성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관평가인증에서는 평가 항목 중 한가지만 미충족이 되더라도 인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여 법인 전입금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후 임대료와 기부금이 대폭 감소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대학의 지속을 위하여 법인에서도 확대방안 강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 ▶ 전원: 없습니다.
- ▶ 우병훈 위원장: 제2호~제6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 임연선 위원: 동의합니다.
- ▶ 김순정 위원: 재청합니다.
- ▶ 우병훈 위원장: 기타 토의사항 있으십니까?
- ▶ 박훈민 위원: 과거 학생회 지원비가 학기당 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0회계연도부터 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숙영 위원: 학생회 지원비는 학생회비를 재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학생회비의 징수에 따라 예산 배정에 변동이 발생합니다.
- ▶ 임연선 위원: 학생회비의 인상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숙영 위원: 총학생회에서 징수방법, 금액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총학생회에서 학생회비 징수 규모에 따라 대학에서도 대응 예산이 증액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우병훈 위원장: 추가의견 있으십니까?
- ▶ 전원: 없습니다.
- ▶ 우병훈 위원장: 2023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대학의 추가적인 분석에 따라 그 결정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를 위임하는 것으로, 전주비전대학교 임의기금 및 기금별 이자 선급법인세 환급액 적립(안), 2022회계연도 전주비전대학교 교비회계 제2차 추가경정(안),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법정부담금(안), 2023회계연도 전주비전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예산(안), 교비회계 이월금 처리기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귀하

우병훈 위원장



김순정 위원



박훈민 위원

박훈민